

악의적 거짓 진술에 성폭행범 몰려...풍비박산 난 가정

지적장애 조카 성폭행한 남편 대신 이웃집 남성에 죄 뒤집어 씌워 억울한 옥살이 한 아버지 누명 벗기려 임신한 딸이 백방으로 뛰어 천신만고 끝에 피해여성 찾아 진실 밝혀냈지만 그 와중에 유산까지

“하느님이 제 아이를 데려가시고, 대신 제 아버지를 돌려주신다면 그것으로 하느님께 감사하려 합니다.”

A씨의 50대 아버지 B씨는 2016년 1월 어느 날 갑자기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지적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C양이 같은 빌라에 사는 것을 제외하곤 아무런 인연도 없는 B씨를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거짓’ 진술이 시작이었다. 이는 조카인 C양에 대한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남편이 무심코 지목한 남성에게 죄를 돌리려는 고모(58)의 강요 때문이었다.

신고를 받은 전남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

다. B씨가 아무리 결백을 호소해도 누구도 믿지 않았고 들어주지 않았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B씨를 구속했고 가지도 않은 호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B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제출했던 “허위 진술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무고 혐의에 추가해 죄값을 더했다.

1심 법원은 2017년 3월,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해당 여성과 아무런 원한관계도, 사적 만남조차 전혀 없었던 B씨는 이렇게 갑자기 구속됐다. 하지도 않은 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으로 돌아간 B씨의 심정은 어땠을까. 자신의 아버지가 성폭행범일 리 없

다고 굳게 믿고 있는 가족들은 교도소에 갇힌 아버지를 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일어나 힘들었을까.

그의 말을 믿고 억울함을 풀어준 건 수사기관도, 사법기관도 아닌, 딸 A씨 뿐이었다. 아버지를 감옥에 둘 수 없었던 딸은 임신한 몸으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마을 주민들을 만나 진술을 수집했고,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고모와 조카 지적장애 여성의 일상을 한 달 반 가량 쫓았다.

딸은 이후 함께 살던 고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가정을 꾸린 지적장애 여성을 천신만고 끝에 찾아냈고 “진실을 말해달라”며 호소했다. 딸은 “아버지가 아니라, 고모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해당 여성의 진술을 받아내 2017년 9월,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카인 C씨 자매는 가족 상황으로 인해 성인이 되기 전부터 고모네 손에 맡겨졌고, 고모는 조카들을 때리거나 위협해 자신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도록 했

다는 내용이 밝혀졌다.

결국, 아버지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지 10개월 만에 항소심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수사기관의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딸은 이 과정에서 유산을 했고, 아버지는 생업을 잃었다.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몰았던 C양의 고모와 고모부(52), 지적 능력이 부족한 조카 2명과 큰 조카의 남편 등은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무고·무고교사·특수강요·명예훼손·협박,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처 조카인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고모부는 지난 2018년 9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딸은 이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서 출석, “하느님이 제 아이를 데려가시고 대신 제 아버지를 돌려주신다면 그것으로 하느님께 감사하려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지도 않은 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결국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으로 돌아간 B씨가 느꼈을 막막함을 떠올려 보면 바로 그 감옥이 ‘지옥(地獄)’의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라며 “사건을 심리하면서 당시 B씨가 느꼈을 참담한 심경이 절절하게 느껴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판결을 통해 B씨 가족들이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C양의 고모와 고모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어렵게 하고, 무고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험한 범죄”라며 “B씨의 경우 이같은 위험이 현실로 나타났고 법원의 오랜까지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서울 지하철 방화범 출소 후 광주서 또 방화

6년 전 서울지하철 도곡역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방화범이 출소 후 광주에서 또 다시 방화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소송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게 경찰이 파악한 범행 경위다.

광주동부경찰은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A(77)씨를 긴급체포했다.

불은 보안 경비음이 울리면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초기 진화됐다. 해당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인데다,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뤄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에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빌딩 계단 등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범행후 달아났다가 1시간 정도 후인 새벽 4시 10분께 건물 상태를 살펴보고 방화 현장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에도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승객 약 370명을 태우고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5년

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해당 건물 지하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비가오면 천장에서 인분이 섞인 오폐수가 흘러들어 온다고 건물소유주인 광주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

그는 2005년부터 2차례 걸쳐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오폐수가 넘치는 일이 멈추지 않자 지난 2012년 3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8200만원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000만원의 손해 배상 책임만 인정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 조사 내용이다.

A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지하철에 방화하는 것이 ‘억울함을 널리, 가장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출소 뒤 같은 상가 건물 지하층 입차 권리가 유효함을 주장하며 유흥업소 자리를 개조해 주차장을 운영했지만, 해당 건물 공동 소유자의 명도소송에 따라 주차장을 내줄 상황에 처하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횡단보도 일가족 교통사고 관련 운전자 4명 범칙금 부과

경찰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교통사고(광주일보 11월 18일 7면)와 관련, 보행자의무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광주북부경찰은 지난달 17일 발생한 횡단보도 사고 당시 반대편 차선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운행한 운전자 5명을 불러 출석한 4명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거쳐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3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를 위반 혐의를 적용,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20점을 부과했고 사고 당시 맞은편 2차로에 불법 주·정차를 했던 승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9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일시정지했다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충분히 건널 수 있었다는 판단에 이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버스승강장 따뜻하게 15일 광주 북구 입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앞 버스승강장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과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온기텐트(바람가림막)를 설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1개월 공석 광주 서구보건소장 우여곡절 끝 채용

1년 가까이 공석이던 광주 서구보건소장에 성형외과 전공 전문의가 선발됐다.

15일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구는 지난 10일 ‘광주 서구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를 내고 신임 보건소장을 채용했다. 신임 보건소장은 모 대학병원 출신 전문의로 알려졌다.

서구 보건소장 자리는 지난 1월 전임 보건소장 사직으로 11개월 간 공석 상태였다.

서구는 올초 ‘코로나19’ 여파로 보건소장의 필요성이 구청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채용에 나섰지만 5차례가 넘는 채용공고에도 지원자가 나서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한 때 직장 내 물의를 일으켜 물러났던 전직 관료를 임명하려던 움직임이 알려

지면서 공무원노조 등이 반발, 철회되기도 했다.

당시 서대석 서구청장은 전직 관료를 임명하기 위해 인사규칙을 고치고 사내방송을 통해 직원들에게 임명의 정당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 서구보건소 직원은 “우여곡절 끝에 보건소장이 채용돼 다행이다. 보건소장 임명으로 서구 보건행정과 코로나 방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매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리조트 매매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 토 지 : 22784㎡(6892평) • 건축 물 : 4290㎡(1298평) 지상5층
- 총객실수 : 55세대 • 부대시설 : 세미나실, 카페, 매점, 바베큐장
- 매 매 가 : 80억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 ·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